

두 지역 살아보기 '고흥스태이', 전국서 인기몰이

옛 한전사택 리모델링...생활인구 유치·지역경제 활성화 2기 참가자 경쟁률 45대1...문의 쇄도·郡홍보 역할 '특목'

고흥군이 도시민을 대상으로 체류 공간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고흥스태이'를 운영해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다.

9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두 지역 살아보기 고흥스태이'에는 도심 속 유희시설로 방치된 옛 한전사택을 매입해 내부 공간 리모델링과 외부 환경 정비를 거쳐 올해 7월 준공식을 가졌고, 8월부터 12월까지 1기 12세대를 운영 중이다.

'고흥스태이'는 고흥에 관심을 가진 여가, 휴양, 체험 등의 목적으로 지역에 정기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거주 공간을 제공하며, 다양한 체험과 주민 교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생활인구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고흥군은 2기를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2주 동안 모집한 결과 수도권 등 전국 각지에서 540가구가 신청해 평균 경쟁률 45대를 기록했다.



고흥군이 도시민을 대상으로 체류 공간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두 지역 살아보기 고흥스태이'를 운영한다. 사진은 고흥스태이 내·외부 모습.

특히 지난 11월 초 유튜브에 소개된 고흥스태이 영상이 조회수 170만회를 돌파했으며, 참가 신청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는 등 고흥 홍보에 큰 역할을 톡



고흥군이 도시민을 대상으로 체류 공간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두 지역 살아보기 고흥스태이'를 운영한다. 사진은 고흥스태이 내·외부 모습.

특하고 있다. 2기 참가자는 연령, 가구당 참여 인원 등 정량평가와 지원동기, 홍보 계획 등 정성평가로 나눠 2단계에 걸친 철저한

심사를 통해 12세대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2기 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나만의 텃밭 체험, 고흥 인물 탐험, 고흥유랑

단 등 고흥에서 체류하면서 지역 주민과 함께 어울리며 고흥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도시민들이 고흥에서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편안한 보급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고흥스태이를 운영하게 됐다"며 "2030 고령인구 10만 달성의 마중물이 되고,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이번 고흥스태이 1호점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고흥 속 우 주인 마을'을 테마로 한 고흥스태이 2호 조성을 검토 중이며, 더 많은 도시민이 고흥과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흥=최봉환 기자

'10년 보수' 여수 진남관, 내년 2월 재개관

정기명 시장 "경내 조경 기준대로 복원 최선" 주문

여수시가 10여년간의 보수 작업을 마친 진남관의 내년 2월 재개관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정기명 여수시장을 비롯한 국·소·단장 및 관계 부서장 등 간부 공무원 30여명이 진남관 일원에서 12월 권역별 현장 간부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국가 유산인 진남관 보수 정비 현장과 인근 전라좌수영 동헌을 복원해 역사문화공원을 조성 중인 사업지를 둘러보며 진행됐다.

정 시장은 사업 추진부서인 문화유산과와 현장소장으로 진남관 보수·정비 상황을 보고받고, 재개관 준비를 위한 마무리 작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진남관 경내 조경을 기존처럼 복원하되, 현실 여건을 반영해 최선의 방안으로 조성하도록 강조했다.

정 시장은 "진남관 재개관을 시작으로 전라좌수영 동헌 역사문화공원 조

성사업, 전라좌수영 겸 최초 삼도수군 통제영 옛 성터거리 조성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역사적 정체성을 가진 여수의 대표적 역사문화공간이 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오랜 시간 진남관 재개관을 기다려온 시민들에게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잘 홍보



정기명 여수시장이 지난 6일 국·소·단장 및 관계 부서장 등 간부 공무원 30여명과 함께 진남관 일원을 찾아 재개관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여수시 제공>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13년부터 진남관 보수를 위한 설계를 시작해 2015년 착공한 이후 10년 가까이 부지 발굴 조사와 정비를 추진했으며, 12월 중으로 일부 개관 후 내년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재개관할 예정이다.

/여수=김진선 기자



보성 '건강행복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마음건강 원예활동을 통해 만든 화분을 들고 활짝 웃고 있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 건강행복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호응

군체육회 협력...요가·박수체조 등 노년층 건강관리

보성군은 9일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하나로 '건강행복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노년층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했다"고 밝혔다.

'건강행복마을 만들기'는 생활터를 찾아가는 형태로 진행됐으며, 노인 건강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신체 활동을 포함했다.

지난 11월 기준, 보성군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3만7천70명)의 43.8%에 해당하는 1만6천241명으로, 노

년층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 증가와 진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예방적 관리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보성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보성군체육회와 협력해 '건강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확대했으며, 11개 읍면 21개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서 주민들의 지속적인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체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신

체 활동을 포함했다.

매주 1~2회 요가, 박수체조, 밴드 운동 등의 신체활동과 함께 ▲금연 및 음주 폐해 예방 교육 ▲영양교육 ▲치매 예방 교육 ▲마음 건강 원예 활동 등을 포함해 주민들의 체력 증진과 건강관리를 도왔다.

참여자들은 사전 및 사후 체력 측정과 기초 검사를 통해 악력, 평행 걷기, 체질량 지수 등 건강 지표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경험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내년에도 보성군체육회와 협력해 '건강행복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며, 노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담양군, 제4기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공개모집

27일까지 30명...청년 정책 의제 발굴·제안 등 역할 참여

담양군은 9일 "오는 27일까지 지역 내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발굴을 함께할 제4기 담양군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정책협의체는 청년 정책 관련 의제 발굴·제안, 의견 수렴·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하는 청년 참여기구다.

모집 인원은 30명 이내로 공고일 기

준 담양군 거주 19~49세 이하의 청년으로, 군정 운영과 청년 정책에 관심을 두고 협의체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협의체 위원 활동을 희망하는 청년은 담양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담양군청 참여소통실 인구청년정책팀으로 방문 제출하거나 담당자에게 전자우편(s

ih8888@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내년 1월 초 개별 통보 및 담양군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선발된 협의체 위원들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2년간 청년정책 의제 발굴과 제안, 정책모니터링, 청년 네트워크 간 문화교류, 선진지 벤치마킹 참석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김용진 참여소통실장은 "청년 정책의 주체인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장성군, 농기계임대사업평가 4년 연속 '전국 1위'

88종 769대 농기계 보유...전문운송업체 택배 서비스 '호응'

장성군은 9일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관 '농기계임대사업평가'에서 전국 1위에 올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평가는 전국 147개 시군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인력 조직 ▲사업 성과 ▲발농업 기계화 ▲사업 지속성 확보 ▲정책 참여 및 경영개선 노력 ▲수요자 평가 6개 항목을 중심으로 시행됐다.

장성군은 모든 항목에서 고득점을 거두는 등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높인 정답이었다. 이번 수상으로 2021년 이후 4년 연속 농기계임대사업평가 전국 1위

기록을 달성하게 됐다. 88종 769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장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장성을 본소와 서·북부 본소, 남부임출고장 등 총 4곳을 운영 중이다.



장성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우수 기관상 수상. <장성군 제공>

특히 전문운송업체를 통해 농업인이 원하는 곳까지 임대농기계를 배달해 주는 '농기계 택배 서비스' 시행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농기계임대사업소가 4년 연속 전국 최고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농업인이 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성=김태기 기자



화순군, 지역먹거리 지수 A등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상

화순군은 "최근 '2024년 지역먹거리 지수 시상식'에서 평가 'A등급'을 달성해 우수상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상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사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는 지난 2020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정책 활성화 정도와 지자체의 노력을 14개 항목으로 심사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화순군은 ▲지역공급 생산 ▲공공영역 로컬푸드 공급 실적 ▲직매장 매출액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지역 먹거리 계획 실천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구현진 농촌활력과장은 "향후 화순군 먹거리 종합계획에 맞춰 군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순천만 큰고니, 연꽃 복원습지서 먹이활동 시작

26마리 월동 중...연 3천300뿌리 식재 먹이원 조성

순천시는 9일 "지난 6일 천연기념물 201호 큰고니 8마리가 순천문학관에서 무진교 방향 600m 아래쪽에 위치한 연꽃 복원습지에서 먹이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사진)

천연기념물 201호,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국제적 보호종인 큰고니는 오리과 고니속에 속하며 갯벌에서 새싹매자기 알뿌리나 하천 주변의 수초를 먹으며 월동한다.

올해 내륙에 조성된 연꽃 복원습지는 순천문학관 600m 부근에 있으며, 국가유산청 국비 지원을 받아 농경지 2만 5천㎡에 연 3천300뿌리를 심어 큰고니 먹이원으로 조성됐다.

지난달 2일 큰고니 2마리가 순천만에 첫 도래한 후 2마리가 월동 중이며, 그동안 갯벌과 하천에서 관찰됐다. 이번

에 추가로 발견된 큰고니 8마리는 내륙에 복원습지로 조성한 연꽃단지에서 처음 먹이활동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꽃 복원습지는 큰고니뿐만 아니라 노랑부리저어새도 꾸준히 관찰되고 있어 만조시 다양한 물새 서식지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순천만에서 관찰된 큰고니 개체수는 총 34마리다.

스카이뷰 순천만역에서 갈대열차를 타고 큰고니를 관찰한 한 관광객은 "도심과 가까운 곳에 이렇게 온전한 자연생태계가 남아 있다는 것이 놀랍다"며 "매년 연말에 순천 여행을 오는데, 올해는 탐조 명소로 떠오른 탐사길을 걸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순천=정기 기자

